

#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실천을 위한 기록작업 모형 개발\* \*\*

## Development of a Documentation Model for the Practice of Early Childhood and Play-oriented Curriculum

문서연<sup>1</sup> 김진욱<sup>2</sup>

Seoyeon Moon<sup>1</sup> Jinwook Kim<sup>2</sup>

### ABSTRACT

**Objective:** This study aimed to develop a documentation model that can support early childhood learning through play and facilitate the implementation of early childhood and play-oriented curriculum.

**Methods:** This study utilized the design and development research methodology to derive components for the model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investigation research. In addition, the model was gradually improved through the 3rd expert review, and the validity of the model was verified through usability evaluation with 10 early childhood teachers.

**Results:** This study identified 13 components and developed a flexible, selective, repetitive, and cyclic documentation model based on the 2019 revised Nuri curriculum. Model development is embodied and presented as a model-detailed model-detailed content. The model is presented in detail in the study.

**Conclusion/Implications:** The documentation model developed in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guidance to early childhood teachers and serve as a basis for future research on documentation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able to present the practical direction of records for play support for teachers in the field.

\* 본 논문은 2023년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본 논문은 2022년 한국보육지원학회 추계학술대회 포스터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sup>1</sup> 제1저자

명지대학교 아동학과 객원교수

#### <sup>2</sup> 교신저자

명지대학교 아동학과 부교수  
(e-mail : jwkddorange2@mju.ac.kr)

**key words** Early Childhood and Play-oriented Curriculum, documentation, documentation model, model development

## I. 서론

예전부터 유아들에게 가치 있게 시행되어 온 기록은 교사들이 놀이 과정 중 미처 찾지 못한 유아들의 놀이 속 의미를 발견하도록 돕고, 유아들의 순간과 경험을 가시적으로 만들어준다(오문자, 2015). 이는 교사가 유아들의 놀이 과정을 재방문하면서 교사 놀이지원과 지식체계를 재구성할 수 있음을 뜻한다(김경철, 김안나, 2009). 기록은 교사가 유아들에게 귀 기울이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개별 유아의 특성을 발견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사가 유아를 중심으로 한 교육 흐름의 방향을 잡아갈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도모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된다(김경철, 1999; 김경철, 김안나, 2009). 만약 유아에 대한 기록이 잘되지 않은 경우의 교사 지원은 유아들의 놀이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 할 수 있다(엄정애, 2009). 이에 기록작업을 통해 교사는 놀이에서 드러나는 유아의 언어·비언어적인 상호작용과 행동 등을 관찰하고 해석하여 교사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는 과정을 통해 적절하게 교수지원을 해야 한다(김보은, 2014). 이러한 기록작업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하나의 목표에 관한 유아의 목적달성을 측정하는 평가보다는 놀이 속 유아를 섬세하게 관찰하고 그에 알맞은 적절한 지원(교육부, 2019; 김은영 등, 2019)을 할 수 있는 기록작업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작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핵심인 기록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석실(2015)의 연구에서 유아평가 문제를 분석한 결과, ‘과한 업무량으로 인한 시간 부족’이 18.2%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교사의 유아평가 인식과 전문성 부족’, ‘평가 결과를 교수계획에 반영하지 않음’이 15.9%, ‘평가 체계성 및 계획성 부족’과 ‘평가자료 분석 능력 부족’이 각각 13.6%, ‘평가지침과 기준, 도구 등의 부재’가 11.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맥을 같이 하여, 기록작업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한 개정 누리과정의 현장 활용 및 반영에 관한 유아교사의 어려움 및 딜레마를 담은 연구(김지성, 2021; 원지선, 2020; 윤민아, 2019; 채승연, 2020)들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처럼 교사들은 개정 누리과정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으며, 특히, 개정 누리과정의 핵심인 기록작업에 대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과거 ‘평가’는 유아가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등을 찾아내는 과정으로, 발달의 달성 정도를 파악하는 과정(이상하, 2011)에 그쳤다. 그러나 여기에서 제시되는 ‘평가’란 일정한 수준으로의 도달이나 유아 혹은 기관 사이의 상대적인 평가가 아닌, 유아 놀이에 관한 섬세한 관찰에 대한 적합한 지원의 평가를 의미한다(교육부, 보건복지부, 2019a; 김은영 등, 2019; 배운진 등, 2020). 따라서 교사는 관찰에 따른 평가를 하고자 하는 대상과 목적에 대한 알맞은 방법을 선정하고, 기록한 자료들을 근거로 교육과정 실천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교육부, 보건복지부, 2019a; 배운진 등, 2020). 이에 기록작업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교사들이 가치 있고 유의미한 유아평가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관찰 및 기록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이진희, 2012).

기록작업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현장에서 기록작업을 적용해보는 교사들 자신이 인식변화를 경험하고 기록작업을 바탕으로 한 성장 등을 연구참여자들의 목소리로 들어볼 수 있는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교사의 기록과정을 통한 교사의 인식변화를 다룬 연구(강진주, 2014; 김경철, 김안나, 2009; 신윤원, 2010)와 기록작업을 통한 연구자 및 교사들의 성장 및 경험 관련 연구(김보은, 2014; 김은숙, 한미라, 2009; 박선희, 2006; 박성경, 2020; 박소연, 2016; 임진영, 2009; 정효진, 2018), 기록화의 의미를 탐색한 연구(강진주, 2015; 김경철, 1999, 노연서, 2018), 기록작업을 적용하며 유아들의 변화과정을 다룬 연구(신현자, 2000) 등이 있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에서는 교사가 현장에서 기록하며 기록작업의 중요성과 기록작업의 가치 및 의미를 파악할 수는 있었으나, 기록작업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는지, 교사가 기록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어떠한 흐름과 방식으로 기록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다. 이러한 기록작업의 내용을 연구에 담아낸다면 개정 누리과정 운영의 기록에 대한 어려움을 가지는 교사들(민현지, 2021)에게

어떠한 내용을 기록하고, 또 어떠한 궤도로 기록을 해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강구 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하여 강진주(2014)는 처음으로 기록을 접하는 유아교사는 기록의 과정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현장에서 기록작업을 지속해서 적용하기엔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며, 교수의 일부인 기록을 계속해서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록 관련된 방법, 기술 등의 다양한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또한, 방법론적으로 접근하면, 기록작업이라는 주제가 질적인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음에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질적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유아 관련 기록작업을 주제로 한 양적연구로는 이영만(2007)의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의 기록에 관한 교사 인식과 적용실태를 다룬 연구와 서정아(2001)의 수행평가 결과의 기록 및 활용을 다룬 연구뿐, 이외에는 수치를 통한 양적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기록작업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목소리를 담은 질적 접근과 객관적으로 수치화된 내용을 담은 양적 접근 모두를 포함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기록작업의 중요성이 강화되면서 기록작업에 대한 사회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가 주관하는 i-누리 포털에서는 교사가 유아들을 관찰하고 놀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기존의 교육 및 보육 계획안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기록 방식, 하루일과 중 유아의 놀이를 중심으로 기록하는 방식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관찰을 위한 방법으로 포토잇을 사용하거나 사진 및 그림 등의 방법으로 기록을 표현하는 교사 자신들만의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배운진 등, 2020). 그러나 여기에서 제시하는 내용들은 개별 유아에 대한 내용을 기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놀이를 따라갈 수 있는 흐름의 기록방안이 요구된다(배운진 등, 2020). 그리고 학계에서도 관찰기록법을 다양한 방법으로 모색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연구에서는 교사들의 관찰과 기록작업에 대한 어려움과 고충을 돕고자 ‘유아관찰앱’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유아들의 진짜 놀이를 따라가기 위한 기록작업 방법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배운진 등, 2020).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인 노력과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현장에서는 유아들의 놀이를 관찰하고 그 놀이를 읽어내며 지원하는 과정의 기록작업에 관한 명확한 지원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들의 기록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며, 교사들이 현장에서 유아의 놀이를 관찰 및 기록하는 흐름을 토대로 교육과정에 재구성할 수 있도록 가시화된 지원도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양적접근과 질적접근을 모두 포함한 방법론을 취하며, 현재 국가에서 실행하고 있는 개정 누리과정을 기반으로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실천을 위하여 기록작업에 어려움을 가지는 현장의 교사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이를 돕고자 ‘기록작업 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모형(model)’이란 가시화된 지원도구로써, 다른 사람이 따라 할 가치가 있는 본보기(옥스퍼드 사전)라는 뜻으로, 이해가 어렵지 않은 구조를 말한다(류재홍, 2009;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2005). 본 연구에서의 ‘기록작업 모형’은 최근 국가교육과정에 기초한 놀이와 기록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모형을 의미한다. 이는 교사가 유아 놀이기록을 실시하며 그 놀이에 참여하는 유아들의 개별적인 특성을 이해하여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실천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하는 기록작업 모형은 개인과 집단의 경계가 없는 놀이 기록작업의 구조(frame)를

의미한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의 기록은 레지오의 기록작업보다는 좀 더 간소화·한국화되어, 국가수준 교육과정인 개정 누리과정을 적용하는 일반적인 어린이집과 유치원 현장의 교사들이 시행 가능한 기록의 과정으로 조작적 정의한다. 개발하는 모형은 세부적인 내용(기록 영역, 기록 성격, 기록 시간, 기록 방식, 기록준비물 등)을 포함하여 기록작업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고, 교사가 기록작업을 어떠한 흐름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 등을 다루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개발된 모형을 구체화할 것이 필요하여 ‘기록작업 모형-세부 모형-세부내용’으로 모형의 내용을 점차 자세히 기술하여 제시하였다. 한편, 방법적으로는 ‘순서도(flowchart)의 기호’를 적용하여, 약속된 기호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련하여 국제 표준화 기구(ISO: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에서는 약 30개의 표준적인 기호·도형을 사용한다(주형석, 이규진, 2014). 이에 ISO의 기호를 본 연구 주제 및 목적에 알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은 모형 흐름에 논리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기록작업 모형 개발을 위해 선행된 기록작업의 절차적인 과정과 단계의 내용을 다른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이정환과 박은혜(1995)의 관찰 기록의 단계, 레지오 철학으로 유아를 대상으로 한 신윤원(2010)의 기록작업 수행을 위한 과정, 레지오 철학으로 초등을 대상으로 한 Fyfe(1998)가 제시하고, 성용구(2002)가 진행 과정으로 나타낸 기록작업의 진행과정, 교수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홍경선(2007)의 성찰일지를 활용한 학습자중심 수업평가 과정이 있다. 그리고 개정 누리과정을 바탕으로 한 기록작업 과정에는 경기도교육청(2019)의 놀이 들여다보기부터 의미 찾기까지, 송승민 등(2020)의 놀이중심 교육과정에서의 놀이 평가 체계, 박찬옥 등(2020)의 놀이관찰과 기록, 평가의 3R과정이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 속 기록과정과 단계, 기록의 내용을 담은 흐름은 교사가 아이들을 관찰하고 기록하여 의미를 찾아내는 중요 맥락을 다루었으며, 이를 짧고 간결하게 표현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앞선 기록의 과정(성용구, 2002; 신윤원, 2010; 이정환, 박은혜, 1995; 홍경선, 2007; Fyfe, 1998)에서는 일반적인 기록을 중심으로 하여 유아 시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연령으로 기록작업 과정 및 단계가 구성되어 있으며, 유아 주도적인 놀이의 기록을 토대로 기록과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못하였다. 또한, 개정 누리과정의 놀이 흐름(경기도교육청, 2019; 박찬옥 등, 2020; 송승민 등, 2020)에서는 기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지 않아 어떠한 기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기록작업과 2019 개정 누리과정의 놀이 흐름에 대한 선행연구, 그리고 개정 누리과정의 교사 역할 내용을 종합하여 기록작업 모형의 기록영역과 기록 성격을 수립하고, 그것과 연결지어 2019 개정 누리과정에 착안하여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실천을 위한 기록작업 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수준의 유아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교사가 기록하는 작업을 구체화하여 모형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차별점이 있으며,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현장의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하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현장의 교사들은 바빠 움직이는 일과 속에서 유아들의 수많은 놀이 과정을 마주한다. 이때 교사는 기록작업이라는 과정을 통해 유아들의 놀이 의미와 가치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개별적

인 특성에 대한 이해 및 지원에 관련하여 어떠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의 기록은 교사가 유아들의 놀이 흐름을 잡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기록작업 모형을 현장의 교사들이 자신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 적용하고 활용해봄으로써 좀 더 개선된 기록작업을 할 수 있을 것이며, 교사들이 무심코 놓칠 수 있는 유아들의 놀이 속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모형’이라는 가시화된 구조를 토대로 교사 자신의 현장과 유아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기록을 수행한다면, 개정 누리과정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운영철학을 실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가수준 유아교육과정인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실천을 위한 기록작업 모형을 개발할 것을 목표로 하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실천을 위한 기록작업의 구성요소와 기록작업 모형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실천을 위한 기록작업 모형은 타당한가?

## II. 연구방법

### 1. 설계·개발 연구 방법론

본 연구는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실천을 위해 기록작업 모형을 개발하고,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며 최종모형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모형 개발의 접근 방법은 설계·개발 연구 방법론(Design and Development Research)의 방법을 적용하여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설계·개발 연구 방법론이란 설계·개발 연구를 계획 및 수행하는 접근(Richey et al., 2004; Seels & Richey, 1994; Van den Akker, 1999)을 의미한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설계·개발 연구는 실제 교육 현장의 문제를 발견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 교육의 의미를 찾아내는 디자인 과학이다(강지혜, 박태정, 2021). 또한, 다른 기존 연구 방법론의 접근과 달리, 이론적인 기반을 경험적이며 실증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강지혜, 박태정, 2021; Richey & Klein, 2007/2012).

설계·개발 연구는 Richey와 Seels에 의해 1994년에 교육 분야에 정의되었으며, 체계적으로 설계·개발·평가하는 과정을 가진다(강지혜, 박태정, 2021). 이 과정을 통해 연구에서는 효과적으로 교수·학습의 산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주로 교육 분야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Ellis & Levy, 2010), 정보시스템 분야에서도 IT 인공물을 산출하는 설계 과학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설계·개발 연구는 개발연구(development research)의 새로운 용어로, 많은 학자들이 이 둘의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여 Richey와 Klein은 용어에 대한 혼란을 막기 위해 2007년 용어를 ‘설계·개발 연구’로 변경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공학 연구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교육과정이나 수업자료 등을 개발하여 학

급 활동 개선의 목적을 가진 설계·개발 연구방법론(김진수, 2007)을 본 아동학 연구의 방법론으로 적용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설계 교육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돕는 방법론(강지혜, 박태정, 2021)은 기록작업에 어려움을 가지는 현장의 교사들에게 기록작업 모형을 통해 놀이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본 연구의 목적과 일맥상통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육공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설계·개발 연구 방법론을 본 연구에 적용하였다.

한편, Richey와 Klein(2007/2012)은 단순한 형태의 설계개발 연구방법론을 교수적 혹은 비교수적 산출물·도구와 새롭거나 개선된 모형을 생성하는 것으로 제시하여 용어의 혼란을 막도록 노력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주제가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실천을 위한 기록작업의 모형을 개발하고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으로, 설계·개발 연구 방법 중 ‘모형 연구’를 채택하였다. 설계·개발 연구에서 사용하는 연구 방법은 매우 다양하나,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설계·개발 연구의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설계·개발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방법

연구유형	프로젝트 주안점	사용하는 연구방법
모형연구	모형개발	문헌검토, 조사연구, 심층면담, 사례연구, 델파이기법, 소리내어 생각하기
	모형 타당화	전문가 검토, 심층면담, 실험
	모형사용	심층면담, 조사연구, 현장 관찰, 사례연구, 내용분석, 소리내어 생각하기

출처: Richey & Klein(2007/2012). p. 81.

본 연구는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실천을 위한 기록작업 모형을 개발하는 모형연구로, 위의 표에서 본 연구주제에서 활용 가능한 것들을 선정하였다. 모형 개발 단계에서는 문헌검토와 조사연구를 실시하였고, 모형 타당화 단계에서는 전문가 검토와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모형사용단계에서 심층면담과 더불어 사용성 평가를 실시하여 최종모형을 개발하였다.

## 2. 연구절차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실천을 위해 기록작업 모형 개발에 앞서 선행 기록작업 과정 및 단계의 문헌고찰을 통해 기록작업 성격과 영역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문헌연구(이론고찰, 사례고찰), 조사연구(행동사건인터뷰)를 통해 구성요소를 도출하여 기록작업 성격 및 영역과 연결 짓고, 개정 누리과정에 착안하여 모형을 개발하였다. 초안 모형에서 전문가 검토를 3차 실시하며 점차 개선된 모형을 개발하고, 유아교사 10인을 대상으로 2주 이상 사용성 평가를 실시하여 모형을 타당화 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의견과 사용성 교사의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기록작업 모형을 개발하였다. 전체 연구절차는 다음과 같다.

단계	연구의 절차	내용	결과물
모형 개발	모형의 구성 요소 도출	<p><b>문헌연구(이론고찰, 사례고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기록작업 관련 문헌 수집 및 고찰</li> </ul> <p><b>조사연구(행동사건인터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아교사 7인 대상</li> <li>질적연구 교수 2인이 피어체킹을 통한 타당성 확보</li> </ul> <p><b>최종 구성요소 도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동학 박사학위소지자 3인이 구성요소 최종 검토</li> </ul>	<p>예비 구성요소 도출</p> <p>예비 구성요소 도출</p> <p>최종 구성요소 도출</p>
	초안 모형 개발	<p><b>1차 모형 개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성요소 바탕으로 2019 개정 누리과정에 착안하여 1차 모형 A안, B안 개발</li> <li>석사학위 이상의 현장교사 3인을 대상으로 1차 모형 A안, B안을 현장에서 적용하여 모형에 대한 예비 사용성 검토</li> </ul>	1차 모형 개발
모형의 타당화	전문가 검토 (1~3차 검토)	<p><b>전문가 검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문가 집단 12인 대상 (3차시, 11인)</li> <li>1차 전문가 검토에서는 1차 모형 A안, B안 검토</li> <li>전문가 검토지, 심층인터뷰</li> <li>타당도 지수(CVI), 평가자 간 일치도 지수(IRA)와 주관식 답변 분석하여 타당도 검증</li> <li>전문가 검토 의견 반영하여 점차 개선된 모형 개발</li> </ul>	1차~3차 전문가 검토를 반영하여 개선된 2~4차 모형 개발
	사용성 평가	<p><b>사용성 평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아교사 10인 대상</li> <li>4차 모형 적용 (사용성 평가지, 심층인터뷰)</li> <li>최소 2주 이상, 본 연구의 기록작업 모형을 사용한 후, 사용성 평가지와 심층인터뷰 실시</li> <li>타당도 지수(CVI), 평가자 간 일치도 지수(IRA)와 주관식 답변 분석하여 타당성 검증</li> <li>사용성 평가 의견 반영</li> </ul> <p><b>최종 모형 개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문가 검토, 사용성 평가를 바탕으로 최종 모형 개발</li> </ul>	<p>기록작업 모형을 적용한 교사의 기록작업</p> <p>최종 모형 개발</p>

그림 1. 연구절차

### 3. 연구대상과 연구도구

#### 1) 모형의 구성요소 도출

모형의 구성요소 도출을 위해 문헌연구(이론고찰, 사례고찰)와 조사연구(행동사건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첫째, 문헌연구(이론고찰, 사례분석)에서 먼저, 이론고찰에서는 ‘유아·놀이 중심 교

육과정'을 주제로 한 2019 개정 누리과정 자료와 개정 누리과정 이후 발표된 연구물을 수집하여 국내연구 42편, 국외연구 및 국외 번역본 11편(Alvestad & Sheridan, 2015; Aljabreen, 2020; Barnett, 1990; Carr, 2001; Given et al., 2009; McNally, & Slutsky, 2017; Mitchell, 2007; Schroeder-Yu, 2008; Shen et al., 2014; Shillady, 2013; Turner, & Wilson, 2009)으로 총 53편의 기록 관련 자료를 고찰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의 주제와 목적인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2019 개정 누리과정 등) 실천을 위한 기록작업 모형(놀이기록 모형)에 적합한 내용을 담은 연구 12편(강진주, 2015; 강진주, 고은경, 2018; 교육부, 보건복지부, 2019a; 교육부, 보건복지부, 2019b; 교육부, 보건복지부, 2019c; 김경철, 김안나, 2009; 박보영, 정선아, 2021; 박소연, 2016; 박지희, 2021; 우혜민, 2020; 한솔어린이보육재단, 오문자, 2018; Margaret, 2001)을 통해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사례고찰에서는 2019 개정 누리과정의 놀이이해자료(교육부, 보건복지부, 2019b)와 한솔어린이보육재단과 오문자(2018)가 출간한 기록작업을 통해 다시 만난 어린이 서적을 중심으로 사례를 고찰하였다.

둘째, 조사연구(행동사건인터뷰)에서는 현장경험 및 연구경험 등의 유아교육·보육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유아교사 7인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조사연구는 유아교육·보육이라는 학문의 특성상, 이론과 실체가 뿔레야 뿔 수 없는 관계로서 문헌뿐만 아니라, 인터뷰를 통해 현장의 교사들의 목소리를 듣고 문헌연구의 내용 및 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인터뷰를 통한 조사연구를 실시하였다. 조사연구의 인터뷰는 인터뷰 참여자의 성공적인 경험에 대해 다루는 행동사건인터뷰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행동사건인터뷰는 실질적인 직무 이행에 관한 행동을 면밀하게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터뷰 참여자에게 업무 상황 속에서 발생한 주요 사건(critical event)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여 당시의 상황, 그 상황에서 수행하였던 내용과 이유, 그때의 감정 및 느낌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는 과정이다(지옥정, 장희선, 2010). 특히, 행동사건인터뷰는 인터뷰 참여자의 성공적인 경험담 등을 살펴보는 인터뷰 기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장 교사들이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실천하면서 성공적이었던 놀이 사례와 기록의 경험을 알아보기 위해 이러한 전략을 사용하는 행동사건인터뷰의 방법을 적용하였다. 행동사건인터뷰(Behavior Event Interview: BEI)의 전략과 질문내용 방법은 STAR 기법의 방식을 활용하였다. STAR 기법이란, 인터뷰 진행 시 상황(Situation), 과정 혹은 과업(Task), 실제 행동 및 태도(Action), 결과(Result)를 중심으로 특정 직무 상황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는 구체적인 전략적 방법을 말한다(전미연, 2018; 지옥정, 장희선, 2010).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모형 개발 선행연구(김영주, 2014; 전미연, 2018)를 참고하여 본 연구의 주제에 적합하게 인터뷰의 질문지를 수정·보완하였다. 다음으로, 유아교육·보육 현장경험이 있는 박사수료 1인과 유아교육·보육 8년 현장경력을 가진 박사과정생 2인을 대상으로 행동사건 인터뷰의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본 연구의 주제에 적합하게 인터뷰의 질문지를 수정·보완하였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기록작업 모형 개발의 STAR 기법을 기반으로 한 행동사건인터뷰의 질문지(이홍민, 김종인, 2003; 전미연, 2018)를 구성하여 인터뷰에 활용하였다. 주요 인터뷰의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STAR 기법을 활용한 행동사건인터뷰 질문

STAR 기법	항목	주요 인터뷰 내용
S (Situation)	상황, 배경, 히스토리	성별, 연령, 기관 유형, 직위, 경력 본 연구 주제 관련 수상 경력 및 연구 경험
T (Task)	업무의 종류 및 목적, 효과, 주요 이슈 및 극복사례	최근 교실에서 실행하는 기록작업의 사례 기록작업을 할 때 중점을 두는 것 기록작업의 결과물의 적용 및 어려운 점
A (Action)	구체적인 행동, 태도	기록작업을 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기록작업에서의 어려움과 원인, 해결 방법
R (Result)	추진 결과, 성과업적 및 공헌도	기록작업의 체계적인 준비를 바탕으로 수행했을 시의 결과

행동사건인터뷰는 인터뷰의 참여자가 자신의 성공사례, 실천사례 등을 들려주어 그 이야기를 기반으로 모형 개발의 구성요소를 추출하는 과정이므로 행동사건인터뷰의 참여자를 선정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김영주, 2014; 전미연, 201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실천을 위한 모형 개발의 명확한 구성요소 도출을 위해 인터뷰 참여자의 요건을 4가지로 선정하였다. 첫째,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강조하는 2019 개정 누리과정의 경험과 이전 교육과정에 대한 변화를 좀 더 확연하게 알아보기 위해 2019 개정 누리과정(2019년 12월)의 실행 전과 후에 교사 경험을 모두 가지고 있는 유아교육·보육 교사를 선정하였다. 둘째,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과 기록작업에 대한 우수한 사례 혹은 만족하는 경험을 가진 교사를 선정하였으며, 이에 놀이사례 수상 경력이 있는 자를 포함하였다. 셋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기록작업 모형 개발이므로 유아반의 담임교사 경험이 있는 자를 선정하였다. 넷째, 유아반 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본 연구주제와 관련한 연구 경험(도서 출판)이 있는 교사를 선정하였다. 이 외에도 현장의 유아교육·보육 교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기관의 교사를 모두 선정하였으며, 기관의 유형과 더불어 지역에 따른 특성이 두드러지거나 그 특성에 따른 의견이 편중되지 않도록 기관 유형과 지역이 고루 분포될 수 있게 참여자를 목적표집(김영천, 2016)하였다. 이러한 요건을 바탕으로 선정한 인터뷰 참여자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행동사건인터뷰 참여자

이름	성별	나이	지역	기관 유형	직위	유아반 경력/총 경력	학력	비고
가교사	여	39	서울	국공립 어린이집	주임/ 담임 교사	8년/16년	학사	2021 우수 보육프로그램 공모전 '우리들의 놀이이야기' 최우수상 수상(S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주최, 2021) / 석사과정
나교사	여	34	서울	국공립 어린이집	유아 팀장/ 담임 교사	8년/9년	학사	-

표 3. 계속

이름	성별	나이	지역	기관 유형	직위	유아반 경력/총 경력	학력	비고
다교사	여	30	서울	직장 어린이집	주임/담임 교사	7년/9년	전문 학사	‘영유아 중심·놀이중심보육과정 운영 및 놀이이야기’ 공모전 장려상 수상(D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주최, 2021)
라교사	남	39	경북 문경	시립 어린이집	담임 교사	5년/12년	전문 학사	-
마교사	여	32	인천	사립 유치원	담임 교사	7년/7년	석사	전, 레지오 에밀리아 유치원 3년 6개월 근무 경험
바교사	여	49	서울	사립 유치원	원감/담임 교사	13년/13년	학사	-
사교사	여	27	부산	공립 유치원	담임 교사	3년/3년	학사	김선옥 등(2020). ‘놀이와 기록이 만나다’서적의 저자 / 석사과정

조사연구의 자료 수집 및 분석방법으로는 자료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인터뷰 면담 자료(녹화, 녹음기록), 인터뷰 참여자가 사용한 놀이기록 양식 등의 서류, 인터뷰 참여자가 출판한 서적, 연구자의 면담일지로 자료를 다각적으로 수집 및 분석하였다. 먼저, 인터뷰 자료를 모두 전사하고, 전사본과 위의 수집된 자료들을 반복적으로 읽으며 본 연구의 주제에 적합하고 유의미한 내용들을 찾아 내용의 유사성에 따라 유목화하였다. 다음으로, 원자료에서부터 그 위의 범주에 이르는 귀납적 접근 방법인 에믹코딩(emic coding)의 방식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자는 인터뷰 전사본을 유목화하여 라벨링 하는 과정을 거쳐 먼저, 원자료에 대한 1차 구성요소를 도출하여 1차적으로 코딩명을 부여하였다. 총 13개의 자료에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구성요소 명칭을 부여하였다. 다음으로, 연구자가 1차적으로 도출한 구성요소에 대해 질적연구자 교수 2인이 도출된 구성요소의 명칭 및 범주를 확인 및 점검하며 연구자와 함께 수정 작업을 하는 피어체킹을 진행하였다. 피어체킹 결과, ‘구성요소의 명칭이 간결함도 좋지만, 최대한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명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연구자와 질적연구자 전문가는 1차적으로 도출된 구성요소의 명칭을 수정하여 최종적으로 표 4와 같이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

표 4. 질적자료 조사연구(행동사건인터뷰)의 구성요소 도출 과정

	1차 구성요소 도출	최종 구성요소 도출
원 자 료 →	관찰 및 순간의 기록	유아 관찰을 통한 순간의 기록
	교사 지원의 기록	교사 놀이 지원의 기록 (언어·환경·정서)
	교사-유아 함께 놀이의 기록	교사의 놀이참여 기록
	교사-유아-학부모 협력의 기록	교사, 유아, 학부모의 놀이협력 기록

표 4. 계속

		1차 구성요소 도출	최종 구성요소 도출
원 자 료 →		놀이 속 배움 발견의 기록	놀이 속 배움 발견의 기록
		유아들 간의 지원의 기록	유아들 간의 놀이지원의 기록
		유아의 개별적 특성 이해하기의 기록	유아의 개별적 특성 이해의 기록
		유아의 변화와 성장의 기록	유아의 변화와 성장의 기록
		기록 다시 보기(재방문)	기록 다시 보기(재방문)
		유아들의 놀이이야기 기록	유아들과 경험한 놀이 회상하며 소통하기의 기록
		놀이의 확장과 연계의 기록	놀이의 확장과 연계의 기록
		놀이 속 문제해결의 기록	놀이 속 유아의 문제해결의 기록
		기록의 의미 찾기	기록의 철학 세우기

본 연구에서 문헌연구와 조사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도출된 구성요소의 명칭은 조사연구에서 교수자와 연구자가 함께 명명한 코딩명을 사용하였으며, 질적연구 교수 2인에게 명칭의 타당성 검토를 받았다. 최종적으로 도출된 구성요소는 아동학 박사학위를 가진 3인에게 검토받아 최종 구성요소 명칭을 확정하였다.

## 2) 모형 개발 및 타당화 검증

### (1) 전문가 검토

전문가 검토의 연구대상은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과 기록작업 관련한 학문적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포함하기 위해 전문가 총 12인(유아교육·보육 학문 전문가 6인, 유아교육·보육 현장 전문가 6인/ 3차시에는 11인 참여)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3차에 걸쳐 진행하였다. 전문가 검토 대상자 선정은 본 연구의 주제인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2019 개정 누리과정)과 기록작업에 관련한 학문적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포함하기 위해 다음의 표 5와 같이 전문가 선정 기준을 제시하였다.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전문가들에게는 우선순위로 본 연구의 목적 및 내용과 연구의 절차 등에 충분히 안내하고 소통한 후, 연구의 전문가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전문가 총 12인(유아교육·보육 학문 전문가 6인, 유아교육·보육 현장 전문가 6인)이 최종적으로 전문가 검토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전문가 검토의 연구도구는 전문가 검토지를 구성하여 CVI와 IRA의 방법으로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전문가 검토지는 모형의 전반적 타당도를 묻는 문항으로 모든 단계의 필요 여부, 모형의 보편성, 계열의 적절성(Richey & Klein, 2007/2012)에 대한 내용과 선행연구에 제시된 내용(김상희, 2021; 이영태, 2013; 장선영, 이정주, 2015; 전미연; 2018)을 분석하여 고안하고, 본 연구에 적합하도록 수정·보완하였다. 전문가 검토지는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실천을 위한 기록작

업 모형 개발에 대한 타당성, 설명력, 유용성, 보편성, 이해성, 가치성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위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구성된 전문가 검토지 연구도구는 아동학 박사학위를 가진 교수와 아동학 박사학위를 가진 어린이집 원장 총 3인에게 검토지를 검토받아 최종적으로 본 연구의 전문가 검토지를 구성하였다. 최종적으로 검토지는 타당성 3문항, 설명력 1문항, 유용성 1문항, 보편성 1문항, 이해성 1문항, 가치성 1문항 총 8개 문항으로 개발되었으며, 검사 도구는 Likert 4점 척도이며, 3차시에는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표 5. 전문가 검토 선정의 기준 및 인원

구분	선정 기준	선정 인원	참여 인원		
			1차	2차	3차
유아교육·보육 학문 전문가	본 연구 주제(2019 개정 누리과정, 기록작업)에 관심이 있고, 유아교육·보육 관련 박사학위를 가진 자이면서, 교육·연구 및 현장 총 경력 10년 이상인 현직 교수 및 연구자	6	6	6	5
유아교육·보육 현장 전문가	본 연구 주제(2019 개정 누리과정, 기록작업)에 관심이 있고, 유아교육·보육 관련 석사학위 이상 학력을 가진 자이면서, 현장 총 경력 15년 이상인 현직 원장	6	6	6	6
전체		12	12	12	11

본 연구에서는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2019 개정 누리과정)과 기록작업이라는 분야에 있어서 학문적·경험적으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를 선정하기 위해 학문 전문가인 현직 교수 및 연구자와 현장 전문가인 현장 원장으로 전문가를 구분하였다. 학문 전문가는 본 연구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정 누리과정과 기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기 위해 관련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로, 교육·연구 및 현장 경력 10년 이상인 자를 선정하였다. 현장 전문가는 본 연구 주제에 관심이 있고, 유아교육·보육 관련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이면서 현장 경력 15년 이상인 자로 현직 원장을 선정하였다. 이를 근거로 하여, 전문가 검토 선정 기준에 부합한 전문가 검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6과 같다.

표 6. 전문가 검토 대상자

구분	이름	전공	학력	직업	총 경력	비고
유아교육·보육 학문 전문가	A전문가	아동	박사	교수	23년	-
	B전문가	아동	박사	교수	16년	-
	C전문가	유아교육	박사	교수	13년	-
	D전문가	아동	박사	객원교수	25년	본 연구 주제 연구 경험 有
	E전문가	아동	박사	객원교수	15년	-
	F전문가	아동	박사	연구원	22년	-

표 6. 계속

구분	이름	전공	학력	직업	총 경력	비고
유아교육· 보육 현장 전문가	G전문가	아동	박사	원장	25년	-
	H전문가	아동	석사	원장	25년	박사과정
	I전문가	아동보육	석사	원장	20년	박사과정
	J전문가	유아교육	석사	원장	19년	박사과정
	K전문가	아동	박사수료	원장	17년	-
	L전문가	아동	박사수료	원장	15년	-

(2) 사용성 평가

사용성 평가의 목적은 본 연구에서 개발한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실천을 위한 기록작업 모형을 현장의 담임교사가 직접 활용하고 적용해봄으로써, 본 모형의 실제적인 사용이 현장에서 어떠한 도움을 주고, 모형의 부족함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용성 평가의 연구대상은 유아반 교사 10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기록작업 모형이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기관의 유형, 교사의 학력, 경력, 담당 연령 등이 다양하게 포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용성 평가에 참여하는 대상자는 표 7과 같다.

사용성 평가의 연구도구는 사용성 평가지를 구성하여 CVI와 IRA의 방법으로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사용성 평가지는 Tracey(2001)와 이영태(2013), 한수민(2014), 전미연(2018)이 사용한 연구도구를 본 연구 주제에 적합하게 수정·보완하고, 아동학 박사학위 소지자이자 현장의 교사 경험을 가진 3인이 평가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사용성 평가를 구성하였다. 사용성 평가지는 사용에 대한 효과성, 효율성, 보편성, 용이성, 유용성, 타당성, 가치성으로 총 7문항이며, Likert 4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또한, 심층인터뷰를 통해 교사의 의견을 들었다. 사용성 평가의 사용 시기는 약 2주간(보통 3주) 활용하고 적용해보며 기록하는 사용의 과정을 가졌으며, 연구자와 진행 과정에서 사전에 연구를 소개하는 등의 연구 과정을 거쳤다.

표 7. 사용성 평가 대상자

이름	성별	나이	지역	기관 유형	직위	유아반경력 /총경력	담당 연령	학력	비고
A교사	여	41	서울	국공립 어린이집	담임 교사	3년/13년	만5세	석사	-
B교사	여	27	서울	국공립 어린이집	유아 팀장/ 담임 교사	3년/6년	만4세	학사	석사과정
C교사	여	25	서울	국공립 어린이집	담임 교사	1년/3년	만5세	전문 학사	-

표 7. 계속

이름	성별	나이	지역	기관 유형	직위	유아반경력 / 총경력	담당 연령	학력	비고
D교사	여	34	경기도 광명	시립 어린이집	주임 / 담임 교사	8년/10년	만5세	학사	-
E교사	여	29	경기도 광주	시립 어린이집	담임 교사	4년/6년	만3세	학사	-
F교사	여	31	경기도 광주	시립 어린이집	담임 교사	5년/6년	만5세	학사	-
G교사	여	28	서울	직장 어린이집	담임 교사	2년/7년	만3,4세 혼합	석사	레지오 기관 근무 경험 有
H교사	여	29	경남 양산	직장 어린이집	담임 교사	4년/5년	만3,4,5세 혼합	전문 학사	-
I교사	여	46	서울	민간 어린이집	담임 교사	15년/18년	만5세	학사	-
J교사	여	26	서울	사립 유치원	담임 교사	2년/2년	만3세	학사	-

### Ⅲ. 결과 및 해석

#### 1. 초안 모형

##### 1) 구성요소 도출 결과

본 연구에서는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실천을 위한 기록작업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문헌연구(이론고찰, 사례고찰), 조사연구(행동사건인터뷰)를 종합하여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 최종적으로 도출된 구성요소는 기록 다시 보기(재방문, revisiting), 유아 관찰을 통한 순간의 기록, 유아의 개별적 특성 이해의 기록, 교사 놀이 지원의 기록(언어·환경·정서), 유아들 간의 놀이 지원의 기록, 놀이의 확장과 연계의 기록, 교사·유아·학부모의 놀이협력 기록, 놀이 속 배움 발견의 기록, 유아의 변화와 성장의 기록, 유아들과 경험한 놀이 회상하며 소통하기의 기록, 교사의 놀이참여 기록, 놀이 속 유아 문제해결의 기록으로 총 12개이다. (추후에 전문가 검토를 통해 ‘교사의 성찰 기록’이 추가되어, 최종 모형에서는 13개의 구성요소가 된다.)

##### 2) 초안 모형 개발

기록작업 모형을 개발하기에 앞서 2019 개정 누리과정 관련하여 선행연구 속 놀이기록 관련

모형인 송승민 등(2020)의 놀이중심 교육과정에서의 놀이평가 체계와 박찬옥 등(2020)의 놀이 관찰과 기록, 평가의 3R과정, 경기도교육청(2019)의 놀이 들여다보기부터 의미 찾기까지의 모형과 기록작업 선행 모형인 이정환과 박은혜(1995)의 관찰기록의 단계, Fyfe(1998)와 성용구(2002)의 기록작업의 진행 과정, 홍경선(2007)의 성찰일지를 활용한 학습자중심 수업평가, 신윤원(2010)의 기록작업 수행을 위한 과정의 모형 및 교사의 역할을 바탕으로 기록작업 모형의 기록영역 및 기록 성격을 수립하였다. 수립된 기록영역과 기록 성격을 기반으로 첫 번째 연구결과로 도출된 기록작업 모형의 구성요소를 활용하여 2019 개정 누리과정에 착안한 기록작업 초안 모형 두 가지를 개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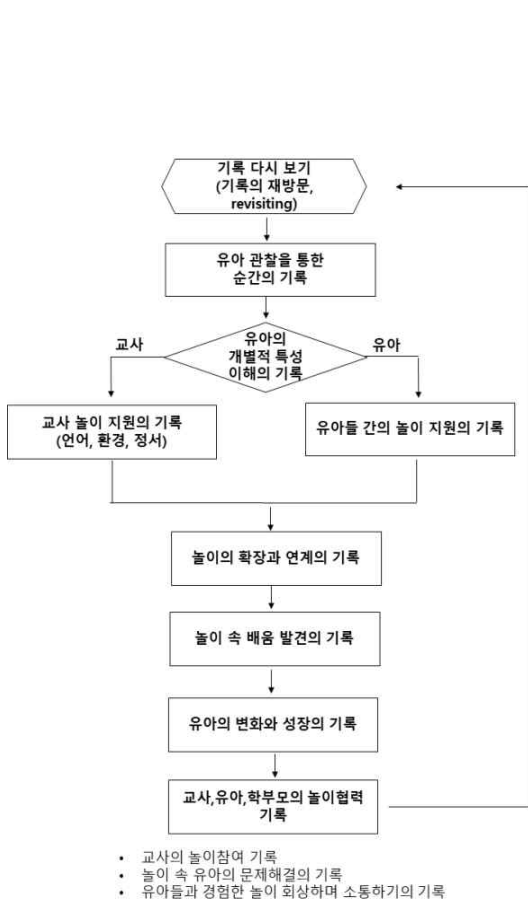


그림 2. 초안 모형 A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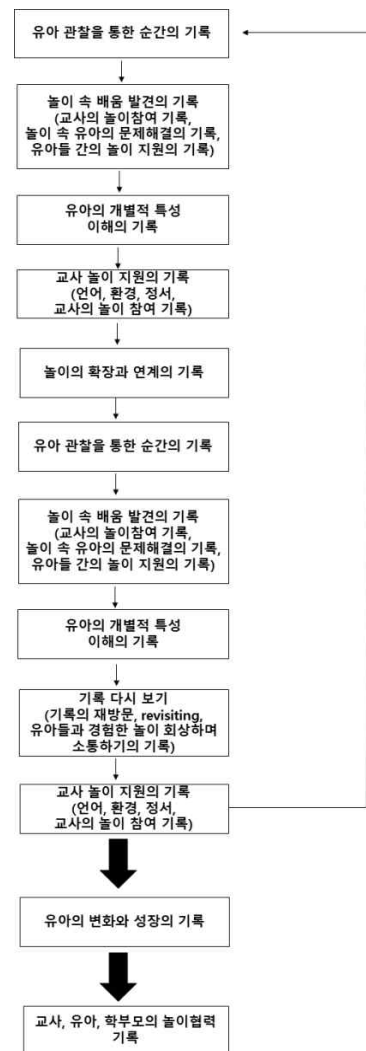


그림 3. 초안 모형 B안

A안 모형은 순서도의 기호(국제 표준화 기구 ISO: Interactional Standard Organization)를 활용하여 각 기호의 약속된 의미를 모형에 반영하였다. 이는 모형 개발에 있어 시각적인 요소가 첨가됨에 따라 현장의 교사들이 모형을 활용하기에 좀 더 쉽게 다가가기로 기대한다. 그리고 좀 더 선택적인 요소를 모형에 반영하였다. 각 현장의 특수성에 따라 개방적인 모형의 성격을 통해 유동적으로 모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B안 모형은 유목화가 한 번 더 이루어졌으며, 모형이 반복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그룹핑 및 반복을 통해 현장에서 교사들이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실천을 위한 기록작업에 대한 흐름을 좀 더 쉽고 빠르게 파악하여 활용 및 적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A안과는 달리, 모형 단계에서 선택적인 요소가 없어 놀이 상황을 판단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초임교사들에게 좀 더 용이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 2. 모형 타당화

### 1) 전문가 검토

본 연구에서 개발한 초안 모형인 A안과 B안의 모형 중에서 전문가의 점수와 의견을 토대로 하나의 모형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이에 A안과 B안 모형의 1차 전문가들의 검토 결과, A안 모형이 CVI 점수가 모두 0.8 이상으로 타당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B안은 A안 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로, 전체 영역에서 3개의 영역만이 CVI의 0.8 이상의 점수를 받았으며, 나머지 5개 영역에서는 CVI 지수가 0.8 이하의 점수로 나타나 타당성이 높지 않다고 나타났다. 전문가의 의견에서도 A안이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기에 좋고, 융통성 있게 사용하기에 이롭다는 의견 등이 나타났다. 이러한 전문가의 설문 점수와 의견을 종합하여 A안 모형이 선정되었으며,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2차 모형을 개발하였다.

2차 전문가의 검토에서는 1차 검토 의견을 반영한 2차 모형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 결과, 8개의 검토 영역에서 4개의 영역이 모두 CVI 1.00 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4개의 영역 또한 .92 로 타당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IRA는 .50 으로 1차 검토 결과보다 점수가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차 전문가 검토에서는 전문가 1인이 참여하지 않아, 총 11인(학문전문가 5인, 현장전문가 6인)을 대상으로 2차 전문가 검토의 의견을 반영한 3차 모형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다. 3차 전문가 검토의 결과, 8개 전 영역이 평균 3.9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CVI와 IRA 지수도 전 영역에서 1.00으로 나타나 타당화와 신뢰도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2차 전문가 검토에서는 2점(그렇지 않다)의 응답이 있었으나, 3차 전문가 검토에서는 모든 영역이 4점(매우 그렇다), 3점(그렇다)의 응답을 받아 타당성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전문가 검토의 모형 타당화 점수가 1차에서 3차로 점차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전문가 검토 1~3차의 의견을 반영한 대표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 표 8과 같다. 그리고 1차 기록작업 모형에서 2차 기록작업 모형이 개발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4, 그림 5와 같다.



표 8. 전문가 검토 의견과 반영 사항

전문가 의견	반영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아의 놀이와 가치 등에 관련한 교사의 고민과 성찰을 기록하는 과정이 필요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사의 성찰 기록’ 구성요소를 추가함. 순서도에서 ‘반복’의 기호를 사용하여 모형의 단계 중, ‘유아의 개별적 특성 이해의 기록’다음 단계에 추가하였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사, 유아, 학부모의 놀이협력 기록이 수시로 일어나며 현장과 가정에 반영됨을 나타내는 것이 필요함</li> <li>• 교사, 유아, 학부모의 놀이협력 구성요소 명칭의 연결 표현 수정이 필요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사, 유아, 학부모의 놀이 협력 기록’ 구성요소의 위치를 변경하여 제시함. 단계적 구성요소가 아닌, 세로로 제시하였음</li> <li>• ‘교사, 유아, 학부모의 놀이 협력 기록’의 콤마에서 가운데 점으로 변경하였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사의 놀이 지원의 기록(언어, 환경, 정서)의 명칭 수정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성요소의 명칭을 수정함. 괄호의 내용을 삭제하였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방적 모형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호를 추가함. 기존의 실선의 기호에서 점선의 기호를 도입하여, 놀이상황에 따라 모형을 활용 가능하도록 하였음</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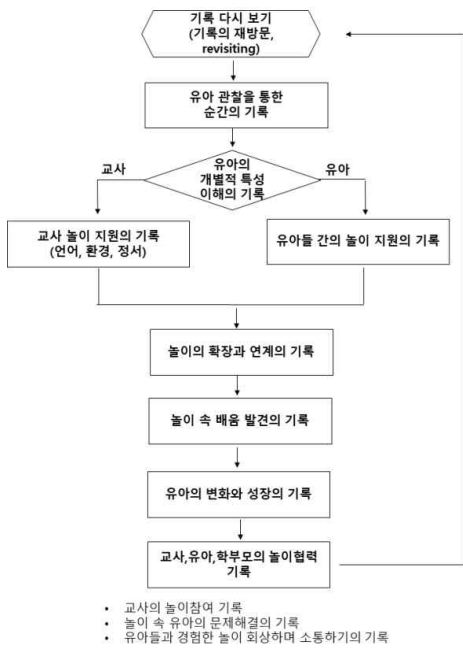


그림 4. 1차 기록작업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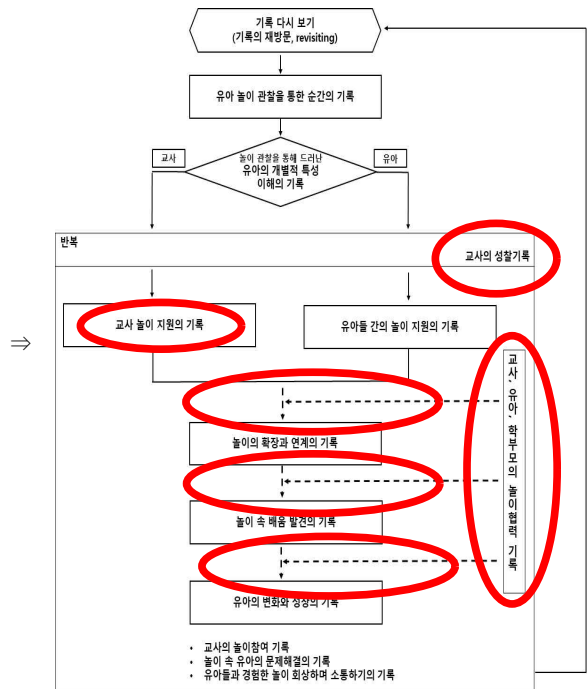


그림 5. 2차 기록작업 모형

## 2) 사용성 평가

3차 전문가 검토의 결과를 반영한 4차 기록작업 모형을 유아교사 10인이 2주 이상 매일 사용하였다. 사용성 평가의 설문 결과와 교사 인터뷰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사들이 기록작업 모형을 사용한 설문 결과로는 가치성이 가장 높은 점수로 나타났으며, 효과성, 타당성, 효율성과 유용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점수는 7개 영역 모두 3.5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CVI와 IRA 지수도 0.8 이상으로 모형 사용성의 타당화와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음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교사의 질적 평가 결과로는, 교사의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이해와 실현의 경험, 현장에서의 모형 활용 가능성, 교사의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의 경험이 나타났다.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이해와 실현의 경험

본 연구에서 개발한 기록작업 모형은 개정 누리과정을 기반으로 하였다. 이에 모형을 사용하면서 교사들은 개정 누리과정에서 강조되는 내용들에 대해 알 수 있었고, 누리과정을 실천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음에 기쁨을 표현하였다.

모형을 따라가니까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순간에 기록을 하고, 아이들의 개별적 특성을 기록을 하다 보니까 ‘이 놀이 속에서 이런 배움이 일어났구나!’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되면서 이해가 되었거든요. 그냥 순간의 기록도 그랬고 개별적 특성도 그랬어요. 그다음에 유아의 놀이 지원을 통해서 저는 놀이 속 배움을 깨달았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형 자체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 배움을 발견할 수 있었다! -J교사

아이들의 놀이 속에서 어떠한 배움이 단순한 놀이가 아니고 어떠한 배움이 있었는지를 제가 조금 더 세심하게 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이 아이들 수준에 맞는 교사의 언어적 지원 아니면은 이제 놀잇감 지원 같은 경우도 제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B교사

제가 한 번 복귀(기록 다시 보기)한다고 하잖아요. (중략) 그것을 제가 나중에 아이들이 했던 말을 적으면서 이 놀이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가 이제 시작을 하면서 내가 애네한테 뭘 정리를 다시 한번 줘야 되는지 그게 다시 한번 복귀되는 게 좋았어요. (중략) 말 속에 다 있더라고요. (중략) 내가 무슨 놀이를 지원을 해 줄 건지, 어떤 재료들로 아이들에게 지원을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은지가 조금 더 많이 보이게 되었고... -J교사

본 연구에서 개발한 기록작업 모형은 2019 개정 누리과정을 기반으로 하여 모형을 사용한 교사들 또한 개정 누리과정의 중요 요소들에 대한 이해를 도우며 실천할 수 있음을 강점이라 하였다. 특히, J교사와 B교사의 인터뷰에서는 교사들이 ‘배움’이라는 용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기록작업 모형을 통해 유아의 놀이 속에서 나타나는 배움을 찾을 수 있었음을 강조하였다. 이는

개정 누리과정에서 추구하는 유아의 배움을 교사가 발견해내는 과정이 모형 속에 잘 녹아들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J교사*의 ‘기록을 다시 보며, 교사가 아이들에게 어떠한 지원을 해줘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아이들의 말속에 다 있었다’라는 발화에서 볼 수 있듯이, 교사의 기록 안에는 유아의 생각과 지원 방향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기록작업’ 자체가 가지는 이점이 개정 누리과정에서 지향하는 바를 잘 담아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록작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각각의 단편적인 기록이 아닌, 모형을 통해 교사가 전반적인 놀이 흐름을 이해하며 기록하는 작업에 의미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교사들은 모형의 단계 중, ‘놀이 관찰을 통해 드러난 유아의 개별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기록’하며, 그에 따라 ‘놀이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유아가 진정으로 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릴 수 있었음을 두드러지게 나타내었다. 그리고 기록이 하나하나 쌓여가며 아이들을 만나기 전에 매일 같이 ‘기록을 다시 보는’ 과정이 놀이 속에서 유아들이 어떠한 배움이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의미 있는 경험이었음을 표현하였다. 이는 기록작업 모형을 사용하며 놀이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그대로의 유아를 바라보고 인정할 수 있었던 것, 유아에게 적절한 놀이 지원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던 것, 놀이 속에 담긴 배움을 교사가 발견해낼 수 있었던 경험으로 개정 누리과정에서 지향하는 바를 실현할 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2) 현장에서의 모형 활용 가능성

교사들은 기록작업 모형을 사용하면서, 현장에서 모형이 활용 가능한지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 이를 모형이 세부적인 내용과 함께 제시되어 있다는 측면과 기호를 활용한 측면으로 살펴보았다.

**100프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놀이기록이 자율화가 되니까 기록이 자율화가 되었으니까. 그리고 놀이기록 어떻게 보면 관찰이 놀이기록이랑 뭐가 다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중략) 저희가 양식이 없어서 그런지도 모르고 전에 선생님들이 해왔던 양식을 보면 무엇보다 훨씬 이게 더 뭐랄까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더 세부적이고 아이들의 배움 발견을 더 잘 볼 수 있고 또 아이들 놀이 성향은 어떻고, 놀이 특성은 어떻고, 이런 것들이 다 잘 보여 놀이 하나로 인해서 잘 보여지니까 저는 부분에 대해서 진짜 현장에서 100프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J교사*

기호가 저는 되게 색다르게 다가오긴 했었거든요. 그런 기호가 있었다는 것들을 몰랐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 기호를 통해서 이제 조금 더 저희는 솔직히 현장에 있기 때문에 시간과의 싸움이라서 이 기호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적용을 할 수 있는 (중략) 저희가 이해할 만큼 이 종이 몇 장, 선생님이 정리해주신 그런 문서 작업들을 저희가 그냥 보기만 해도 이게 이해가 갈 만큼 정리가 되어 있다는 게 많은 수정을 가지고 거의 마무리 작업이라서 ‘현장에서 쓰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더라고요. -*E교사*

본 연구에서는 단지 모형 하나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모형의 세부적인 내용 등을 포함하

여 각 구성요소에 대한 이해와 기록의 영역 및 성격을 함께 제시하였다. 이에 *J교사*의 인터뷰와 같이, 각 요소의 세부적인 설명에 따라 교사들이 기록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그것을 기록해나갈 수 있음에 의미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교사들은 제시된 모형이 점점 구체화 되어 제시되어 있어 모형을 자세히 이해하고 사용하기에 큰 도움이 되었음을 강점이라 하였다.

### (3) 교사의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의 경험

교사들은 기록작업 모형을 사용한 이후, 인터뷰에서 일제히 스스로 교사로서의 성장과 발전의 경험을 느꼈다고 하였다. 이에 어떤 과정에서 어떠한 성장이 있었는지 살펴보았다.

아이들을 더 집중해서 보는 게, 아이들끼리 지원이 되어서 상호작용이 되는지 더 집중해서 볼 수 있게 되고 의도하지 않아도 뭔가 ‘부모님과 협력의 힘이 있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 고민** 이런 것도 또 할 수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C교사*

심리적 소진으로 진짜 아이들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중략) 이제 제가 깨달은 거죠. 내가 진짜 일주일 동안 이걸 썼는데도 놀이 참여가 이렇게 없으면은 이게 우리 아이들한테도 많이 미안하고 너무 내 스스로가 교사로서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저를 저의 교사 생활을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죠. (중략) 놀이기록 하나 하나씩 그건 물론 이제 놀이기록하기 위해서 우리 참여를 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진짜 그랬던 거 같네요. 저는 놀이기록작업을 안 했으면 교사로서의 변화와 성장은 없었을 거 같았어요. 이 기록작업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나태했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더 변화하고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죠. -*J교사*

기본적으로 그냥 뭐 소근육 발달이 좋습니다. 이렇게 적다가, (중략) 표준보육과정, 누리과정에 있는 영역 **세분화되어 있는 것을 뽑아서 보게 되더라고요.** 전에는 그냥 그거 있는 거 보고 이렇게 이게 그냥 이렇게 쓸 때 마다만 봤는데 이거를 하면서부터 그걸 아예 그냥 뽑아 놓고 **애가 지금 어느 부분의 발달이 지금 되고 있는 건지를 찾게 되더라고요.** (중략) 그러니까 연계가 된다는 게 근데 이걸 통해서 조금 더 많이 알아진 것 같아요. -*I교사*

*C교사*의 말과 같이, 교사는 모형을 따라가며 각 요소를 사용하여 기록하기 위해 계속해서 고민하며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는 교사가 지속적으로 유아의 놀이 흐름을 머릿속으로 돌이켜보며 반성적 사고를 하는 과정으로 매우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고 볼 수 있다. *J교사*는 구성요소를 따라가며 기록을 하다가 기록을 다시 볼 때, 내가 항상 기록하지 않으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기록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였다. 이는 교육과정에 기반한 각 요소를 하나하나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에 부딪히고, 교사가 기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추후에는 반영하고자 노력하는 교사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I교사*는 유아들의 놀이에 어떠한 배움이 있는지를 찾고자 이전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교육과정 책자를 찾아보고, 자료들을 살펴보았다고 하였다. 즉, 새로

은 기록작업 모형이라는 것을 도입하여 사용함으로써 이전에 기계적으로 적었던 서류를 위한 서류가 아닌, 교사의 노력이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교사들은 모형을 사용하며 자신만의 방법으로 다양하게 교사로서 성장해나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3. 최종 모형 개발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실천을 위한 기록작업 모형의 초안에서 전문가 검토와 사용성 평가의 의견을 통해 점차 개선된 본 연구의 최종 모형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기록작업 모형은 기록작업 모형을 세부 모형과 세부내용으로 모형을 점차 구체화하여 제시하였다. 최종적으로 개발한 모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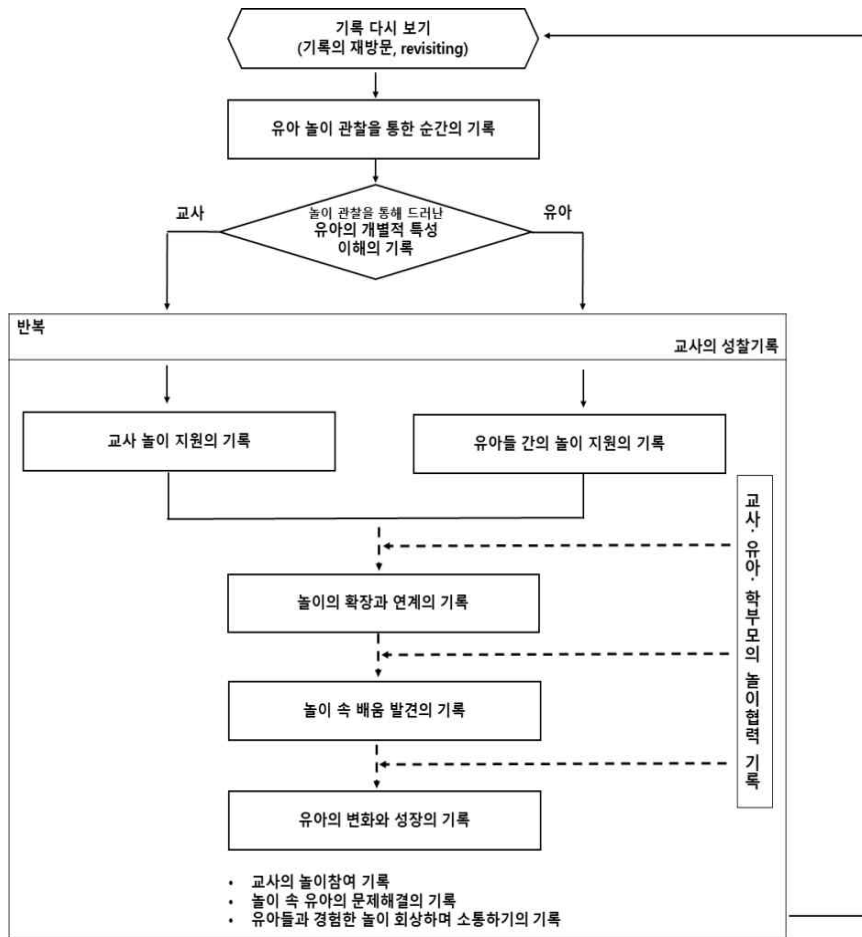


그림 6. 최종 기록작업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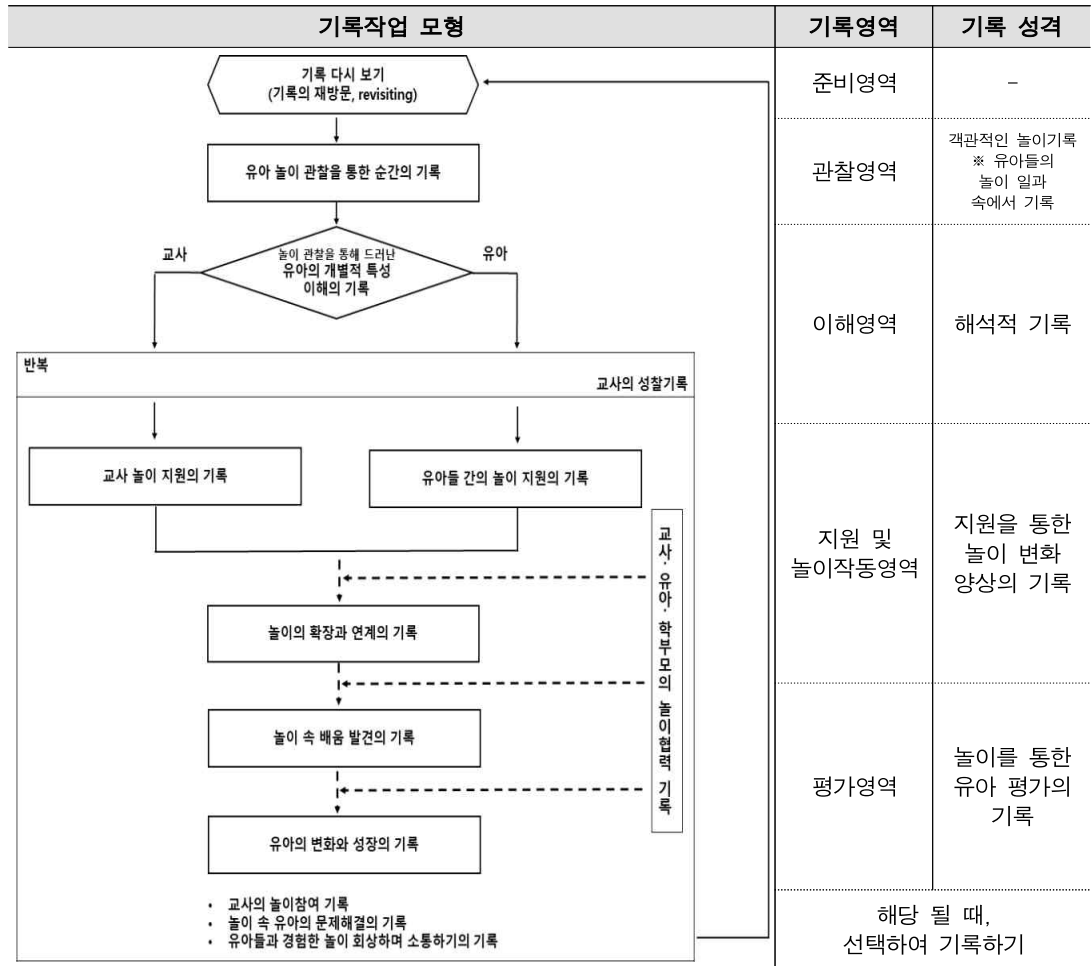


그림 7. 최종 기록작업 세부 모형

표 9. 최종 모형의 세부내용

모형의 구성요소	내용	기록시 고려사항
기록 다시 보기 (기록의 재방문, revisit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에 기록한 자료를 보며 유아들의 놀이, 흥미, 관심, 즐거움 등을 파악한다.</li> <li>• 기록 다시 보기를 바탕으로 유아들의 놀이에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한다. (유아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자료 혹은 유아들의 놀이에 추가적으로 제시해주었으면 하는 자료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사가 기록을 다시 보며, 유아들의 놀이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li> </ul>
유아 놀이 관찰을 통한 순간의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아들의 놀이를 관찰하며 놀이 순간을 사진, 녹음, 영상, 메모 등의 방법을 통해 기록으로 남긴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현장 기관의 특성에 맞게, 교사 자신이 선호하거나 수월한 방식으로 순간을 기록</li> </ul>

표 9. 계속

모형의 구성요소	내용	기록시 고려사항
놀이 관찰을 통해 드러난 유아의 개별적 특성 이해의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객관적인 놀이기록의 자료에서 유아의 개별 특성(각 유아의 흥미, 관심, 성향, 기질, 발달수준 등)을 이해하며 총체적·해석적으로 기록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아의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기록</li> </ul>
교사의 성찰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사가 유아의 놀이와 놀이 속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진정한 모습에 대해 고민하고 되돌아보며, 반성한 교사의 성찰을 기록한다. 이를 통해 아래(교사 놀이 지원 및 유아들 간의 놀이 지원 기록, 놀이의 확장과 연계의 기록 등)에 적용해보며 지속적으로 기록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사가 유아·놀이에 대해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반성하는 노력이 필요</li> </ul>
교사 놀이 지원의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아의 개별적인 특성 이해를 바탕으로 교사가 놀이를 지원하는 내용을 기록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아의 개별적 특성에 맞게 교사가 지원하는 종류와 부분이 다를 수 있음</li> </ul>
유아들 간의 놀이 지원의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놀이 속에서 유아들 간에 놀이가 지원되는 내용을 기록한다. (유아들 간의 상호작용, 모방하기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사가 개입하지 않아도, 놀이 속에서 또래 간의 지원 내용을 기록</li> </ul>
교사·유아·학부모의 놀이협력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사와 유아, 학부모가 소통하여 협력하며 가정 연계 등으로 놀이가 이어지는 내용을 기록한다. (교사, 유아, 학부모의 협력이 수시로 이루어지며 기관에서 반영되며 기록할 수 있음)</li> <li>• 반대로, 유아들이 가정에서 관심을 가지게 된 주제를 기관에서의 놀이로 이어지는 내용을 기록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에서 하는 놀이를 가정에서 가족들과도 지속하는 모습들을 기록</li> <li>• 가정과의 소통 방법: 기관 등·하원시 부모와 교사가 유아 놀이에 관해 소통, 유선상으로 유아의 놀이에 대해 소통, 원아 수첩 혹은 인터넷상의 학부모와의 소통 창구 등을 통해 놀이협력의 내용을 기록</li> <li>• 가정에서 하는 놀이 혹은 집에서 흥미를 가지는 것을 기관에서 친구들, 선생님과 놀이하고 싶다는 내용들을 기록함</li> </ul>
놀이의 확장과 연계의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사 혹은 또래(유아)의 놀이 지원으로 놀이의 확장 혹은 연계되는 내용을 기록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아 주도적으로 놀이가 자연스럽게 확장되고 연계되는 내용을 기록</li> </ul>
놀이 속 배움 발견의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아의 놀이 속에서 교사는 유아의 의미 있는 배움을 발견하여 기록한다. (5개 영역: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영역, 사회관계영역, 예술경험영역, 자연탐구영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놀이 속에서 유아들의 크고 작은 배움을 무수히 발견하여 기록</li> </ul>
유아의 변화와 성장의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놀이를 통해 유아가 변화한 모습, 성장하는 모습을 기록한다. (유아의 모습과 유아의 결과물-포트폴리오 개념의 사진, 작품 그림 등도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아가 놀이하듯, 이전과 변화된 말과 행동, 사고, 흥미 등을 기록</li> </ul>

표 9. 계속

모형의 구성요소	내용	기록시 고려사항
교사의 놀이참여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사가 유아들과 함께 놀이자로서 참여할 때 기록한다.</li> </ul>	
놀이 속 유아의 문제해결의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놀이하며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유아가 혼자 혹은 친구들과 같이 문제를 인식 및 발견하고 스스로 해결해나가는 과정의 내용을 기록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택적으로 기록</li> </ul>
유아들과 경험한 놀이 회상하며 소통하기의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아들과 자신은 무슨 놀이를 하고 있는지, 그 놀이의 내용은 무엇인지, 놀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재미있는 점과 어려운 점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을 기록한다.</li> </ul>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장의 유아교사들이 유아의 놀이 속 배움의 의미를 발견해냄으로써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기록작업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설계·개발 연구 방법론(Design and Development Research)의 방법을 적용하고, 순서도 기호(flowchart)를 활용하여 기록작업 모형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2019 개정 누리과정 관련 자료와 기록작업에 관련한 선행연구 및 서적의 문헌고찰과 인터뷰를 통한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개정 누리과정에 착안하여 개발한 기록작업 모형은 세 차례에 걸쳐 전문가 검토를 실시하여 모형 타당화를 검증하였다. 또한, 전문가의 검토로 개선된 모형을 현장의 교사 10인이 직접 사용하여 현장에서 활용가능한지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할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기록작업 모형은 각 구성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교사가 현장의 특수성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기존에 등장한 기록작업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정환과 박은혜(1995)는 관찰-기록-추론-평가의 순환으로 제시하며 교사의 객관적인 관찰과 기록을 강조하였으며,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추론과 평가의 과정을 제시하였다. 신윤원(2010)은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을 바탕으로, 관찰을 통한 기록작업-기록작업의 재방문-다음 활동의 계획으로 간략하게 제시하였으며, 기록작업의 재방문을 강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Fyfe(1998)가 제시하고 성용구(2002)가 모형으로 제시한 기록작업의 진행과정에서는 관찰-반추-분석-계획-실행의 순환으로, 신윤원(2010)과 같이 레지오 접근법을 강조하며 반추와 분석의 과정을 특히 강조하였다. 홍경선(2007)은 수업-성찰일지 작성-학생들의 학습상황과 요구 파악-수업준비에 반영으로 제시되었으며, 성찰일지의 기록을 통해 학습자의 개별적인 상황과 요구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 2019 개정 누리과정을 바탕으로 한 경기도교육청(2019)과 송승민 등(2020)과 박찬옥 등(2020)은 들여다보기-흔적 남기기-의미 찾기의 순환 과정의 맥락으로 명칭을 다소 변경하여 제시하며, 관찰에서 유아의 놀이 속 의미를 해석하며 개별 유아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였다.

반면에 본 연구에서 개발한 기록작업 모형은 ‘기록 다시 보기-유아 놀이 관찰을 통한 순간의 기록-놀이 관찰을 통해 드러난 유아의 개별적 특성 이해의 기록-교사의 성찰기록-교사 놀이 지원의 기록, 유아들 간의 놀이 지원의 기록-교사·유아·학부모의 놀이협력 기록-놀이의 확장과 연계의 기록-놀이 속 배움 발견의 기록-유아의 변화와 성장의 기록-교사의 놀이참여 기록/놀이 속 유아의 문제해결의 기록/유아들과 경험한 놀이 회상하며 소통하기의 기록’으로 유연하게 기록작업을 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이는 기존에 제시되었던 기록작업 과정이 다소 간략하게 표기되고 순환되는 내용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성찰기록’이 반복되고, ‘교사·유아·학부모의 놀이협력 기록’이 계속해서 다른 놀이기록들과 연계되는 과정을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교사의 놀이참여 기록/놀이 속 유아의 문제해결의 기록/유아들과 경험한 놀이 회상하며 소통하기의 기록’은 놀이가 이루어지며 발견될 때 교사가 선택적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현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 각 기관과 유아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학급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교사의 자율성(교육부, 보건복지부, 2019a)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기록작업 모형을 세부 모형과 세부내용으로 제시하였다. 기록작업 세부 모형에서는 기록작업 모형을 유목화하여 기록영역과 기록 성격으로 나누어 기록작업의 흐름을 교사가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으며, 하단에 기록 시간과 기록의 방식, 준비물, 양식을 포함하였다. 기록작업 모형 세부내용에는 기록영역과 기록 성격에 추가적으로 세부내용을 포함함으로써 모형의 각 요소의 심도 있는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모형에 대한 사용성 평가에 참여한 교사들의 인터뷰에서는 “중이 단 몇 장에 2019 개정 누리과정을 담아내었다는 것이 매우 좋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등의 모형 안에 담긴 내용을 이해하기에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이는 본 연구의 기록작업 모형에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어 교사로서 이해하며 해석하고, 실천하기에 도움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록작업 모형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위해 체계성을 갖추어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제시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기록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교사의 관심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모형을 현장의 유아교사들이 직접 사용한 결과, 모형에 대한 효과가 나타났다. 교사들은 자신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주간보육일지, 관찰일지, 가정통신문의 양식에 기록작업 모형을 적용하여 모형을 사용하였다. 교사들은 각자 놀이의 맥락에 따라서 기록하기도 하고, 놀이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기도 하였으며, 상호작용을 토대로 기록하기도 하는 등 자신만의 방법과 노하우로 기록작업 모형을 사용하였다. 사용성 평가 결과, 교사들은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대해 이해하고 실현할 수 있었고, 현장에서의 모형 활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모형을 사용하고 나니 교사의 전문성이 향상되며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기록이 교사에게 있어 의미 있는 경험(김경철, 김안나, 2009; 신윤원, 2010; 이영만, 2007)이라는 내용과 맥을 같이하며,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모형이 교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기록작업 모형에 의미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현장의 교사들 또한, 자신의 기관 및 학급, 유아들의 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수정·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기존의 기록 모형에는 실선의 화살표를 사용함으로써 모형이 굉장히 절차

적이며 단계적인 것으로 보였다. 다시 말해, 반드시 A단계부터 Z단계까지 순차적인 구조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모형에서는 실선과 더불어 점선을 도입함으로써 교사가 현장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적극 반영하여 자율성을 가지고 모형을 활용·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본 연구의 사용성 평가에서 참여자들이 각자 자신의 기관 양식을 자유롭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것과 같이, 교사 스스로가 자신 기관의 상황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양식이나 기록지를 하나의 정답과 같이 제시하는 방식과는 달리, 개정 누리과정의 취지와 적합하게 교사의 자율성에 따라 기록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는 점이 본 연구의 특색이라고 볼 수 있다. 관련하여 본 연구의 모형을 사용성 평가한 교사는 “아이들의 놀이 상황마다 유동적으로 쓰기에 좋을 것 같아요”라는 의견을 주었다. 이렇듯 본 연구에서는 기록작업 모형을 개발하여 뼈대를 제시하고, 교사가 유연하게 모형을 활용할 수 있음에 의미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기록작업 모형은 교사들이 놀이의 방향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어떠한 내용을 담기 기록해야 하는지의 의문에 답변을 줄 수 있다. 교사들이 모형이라는 어떠한 기본적인 frame을 통해 교육과정에 대해 이해하고, 즉, 다양한 방식(주간보육일지, 관찰일지, 가정통신문 등)으로 연계하여 기록할 수 있는 접근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관련하여 모형의 사용성 평가에 참여한 교사는 “아이들의 놀이 상황마다 유동적으로 쓰기에 좋을 것 같아요”라는 의견을 주었다. 그리고 교사가 단순히 놀이를 나열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아의 놀이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관찰하며 놀이에 참여한 유아들을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과정과 개정 누리과정에서 추구하는 바를 실현하며 기록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었다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또한, 교사들은 ‘기록 다시 보기’를 통해 아이들에게 무엇을 지원해주어야 하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교사의 반성적 사고에 도움이 되었다는 목소리도 함께 들을 수 있었다.

이렇듯 본 연구에서는 기록작업 모형을 개발하여 뼈대를 제시하고, 교사가 유연하게 모형을 활용할 수 있음에 의미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무수히 많은 현장의 모습들에서 나타나는 다양성과 특수성을 기록작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연구를 시도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각 현장의 독특한 여러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기록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할 것을 시사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기록작업 모형은 다양한 분야의 학문에서 접근하는 방법들을 유아 교육·보육 분야에 접목하였다. 먼저, 연구방법론적인 접근에서 볼 때, ‘설계·개발 연구 방법론’의 접근 방법을 적용하였다. 설계·개발 연구는 흔히, 교육공학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접근 방법으로, 교육공학에서는 ‘설계’를 통한 현실의 교육에 개입을 말한다. 여기서 설계는 교육 현장에서 수행하기 가능한 계획 혹은 절차 등(Daly et al., 2012)을 의미하며,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학문을 위한 것(이영태, 2013)을 말한다. 이에 유아교육·보육 분야에서 좀 더 실용적인 모형 개발을 하고자 설계·개발 연구 방법론 접근을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모형에서는 ‘순서도(flowchart)’에서 제시한 기호를 활용하여 모형을 구성하였다. 순서도의 기호는 컴퓨터교육에서 알고리즘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다시 말해, 컴퓨터상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절차나 방법 등의 처리를 한눈에 보기 쉽도록 약속되어진 기호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황아름, 2018). 컴퓨터상에서 처리 순서를 약속된 기호를 사용하여 좀 더 쉽고 빠른 이해를 돕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형 또한 시각적으로 접근하기 쉽고, 논리적인 체계 및 처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기호

의 약속도 필요하다. 따라서 컴퓨터교육 관련한 학문에서 사용하는 순서도의 기호를 본 연구의 모형에 적극 활용하였다. 이는 타 학문 분야에서 사용하는 방법들을 유아교육·보육의 학문에 적용하고 활용함으로써 각자 학문의 이점들을 본 연구의 주제에 알맞게 접목하여 의미 있는 시도를 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학문 분야를 서로 접목하는 시도적인 접근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의 제언으로는 먼저, 본 연구에서 개발한 기록작업 모형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비교분석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는 기록작업을 실시하는 교사들을 단일집단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에 모형의 효과를 일반화하는 것은 다소 제한적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에서 개발한 기록작업 모형 집단과 일반적인 방법으로 기록하는 집단 간의 비교를 통한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기록작업 모형은 현장의 특수성과 다양성, 교사의 기록 방식에 따라 활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작업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교사의 경우, 자신의 기관에 적합하게 적용하거나 활용하는 과정에 다소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각 현장의 특수성에 따라 기록작업의 모형을 개선하거나 수정 및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강지혜, 박태정 (2021). 설계·개발연구와 설계기반연구의 연구동향 분석: 주제범위 문헌고찰. **교육공학연구**, 38(3), 661-698. <https://doi.org/10.17232/KSET.38.3.661>
- 강진주 (2014). 만 5세 장미반 교사의 기록화 과정과 교사 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 경험. **인문학논총**, 35, 73-111.
- 강진주 (2015). 기록화 과정에서 실행연구자로서 유아교사의 역할. **인문학논총**, 39, 373-404.
- 강진주, 고은경 (2018). 유아의 참여권 신장을 위한 교육적 접근으로써 기록화의 가능성: 기록화에서 유아의 참여역할에 관한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3), 751-774. <https://doi.org/10.22251/jlcci.2018.18.3.751>
- 경기도교육청 (2019). **놀이중심 교육과정 심화자료: 놀이 2019, 놀이로 유아의 삶을 담다**. 경기도교육청.
- 교육부 (2019). **교육부 고시 제2019-189호 유치원 교육과정**. 교육부.
- 교육부, 보건복지부 (2019a). **2019 개정 누리과정 해설서**. 교육부, 보건복지부.
- 교육부, 보건복지부 (2019b). **2019 개정 누리과정 놀이이해자료**. 교육부, 보건복지부.
- 교육부, 보건복지부 (2019c). **2019 개정 누리과정 놀이실행자료**. 교육부, 보건복지부.
- 김경철 (1999). 기록화를 통한 유아평가 방법. **열린유아교육연구**, 4(1), 21-43.
- 김경철, 김안나 (2009). 기록 작업을 통한 교사의 귀 기울이기. **열린유아교육연구**, 14(2), 67-89.
- 김보은 (2014). 기록작업을 하는 유아교사의 교수지원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상희 (2021). 대학 융복합수업의 주제 개발 원리 도출 및 모형 개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선옥, 정명숙, 홍승미, 박지영, 김예지, 김혜령, 권나리, 박혜원 (2020). **놀이와 기록이 만나다**. 공동체.
- 김영주 (2014). 자연친화교육 실천을 위한 유아교사의 역량모델 개발. 인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영천 (2016). **질적연구방법론 I: Bricoleur**. 아카데미프레스.
- 김은숙, 한미라 (2009). 레지오 에밀리아 적용 유치원 교사들의 기록에 대한 인식. **교육이론과 실천**, 18, 47-79.
- 김은영, 임부연, 강은진, 고영미, 김진숙, 문무경, 이경화, 이미화, 이완정, 이정옥, 정선아 (2019). **누리과정 개정 정책 연구**. 교육부, 충청남도교육청, 육아정책연구소.
- 김지성 (2021). 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에서 교사들이 마주하는 어려움과 배움.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진수 (2007). 공학교육연구 논문들에 대한 연구방법론과 내용의 분석. **공학교육연구**, 10(2), 19-43. <https://doi.org/10.18108/jeer.2007.10.2.19>
- 노연서 (2018). 교육현장이 다른 교사와 나의 레지오 기록작업 함께 읽기.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류재홍 (2009). 수질모니터링에 기초한 탐구중심 환경교육 모형개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민현지 (2021). 2019 개정 누리과정 실행과정에서 나타나는 교사의 어려움 -공립유치원 교사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보영, 정선아 (2021). 영유아교육에서 관찰과 기록의 차이 탐구: 영유아 관찰. 레지오 에밀리아 교육의 기록, 개정 누리과정 놀이 관찰과 기록을 중심으로. **어린이교육비평**, 11(2), 71-105. <https://doi.org/10.26834/kscice.2021.10.15.71>
- 박선희 (2006). 기록작업을 기반으로 하는 미술교사와 유아교사의 교육공동체 형성: 미술교사의 전문성과 변화를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26(2), 263-282.
- 박성경 (2020). 레지오유치원 교사의 기록작업을 통한 성장: 자서전적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소연 (2016). 유아의 놀이를 기록하는 교사의 경험.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지희 (2021).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교사의 역할 이해와 놀이지원방안: 놀이지원자를 중심으로. **유아교육학논집**, 25(3), 55-82. <https://doi.org/10.32349/ECERR.2021.6.25.3.55>
- 박찬옥, 정남미, 광현주 (2020). 2019 개정 누리과정에 기초한 영유아 놀이지원 놀이지도. 양성원.
- 배윤진, 강은진, 엄지원 (2020). **누리과정 효과성 분석 연구(III): 유아관찰앱 개발 및 적용**. 육아정책연구소.
-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2005). **교육학용어사전**. 하우동설.
- 서정아 (2001). 유치원 수행평가 결과의 기록과 활용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성용구 (2002).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에서 다큐멘테이션(Documentation)의 교육적 가치. **초등교육연구논총**, 18(2), 321-350.
- 송승민, 박인영, 김미옥, 이순희 (2020). **개정누리과정에 기초한 유아중심·경험중심 놀이지도**. 공동체.

- 신윤원 (2010). 유치원 교사의 기록 작업 경험에 대한 사례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현자 (2000). 물 프로젝트 활동에서 기록화를 통한 유아의 사고과정 변화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엄정애 (2009). **영유아 놀이와 교육**. 교문사.
- 오문자 (2015). **레지오 알아가기: 한국에서 레지오 교육의 재구성**. 정민사.
- 옥스퍼드 영어사전 (n.d.). **model**. <https://endic.naver.com/> 에서 2022년 11월 9일 인출
- 우혜민 (2020). 놀이와 놀이중심교육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민아 (2019). 유아교사의 놀이중심교육과정 실천에 대한 어려움과 현장 지원 요구. **유아교육연구**, 39(3), 5-30. <https://doi.org/10.18023/kjece.2019.39.3.001>
- 이상하 (2011).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유아평가에 관한 교사의 인식 및 현황. 성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영만 (2007).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에서 기록 작업에 대한 교사의 인식 및 적용실태. 덕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영태 (2013). 집단지성 기반의 학습환경 설계원리 및 모형 개발: 공학교육에서의 창의설계 능력 향상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은지, 김지현 (2022). 유아교사의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 척도 개발 및 타당화: 2019 개정 누리과정을 중심으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8(1), 23-50. <https://doi.org/10.14698/jkcce.2022.18.01.023>
- 이정환, 박은혜 (1995). **교사들을 위한 유아 관찰 워크북**. 새세대육영회.
- 이진희 (2012). 유아평가의 의미 만들어가기를 위한 실험연구. **유아교육연구**, 32(1), 5-29. <https://doi.org/10.18023/kjece.2012.32.1.001>
- 이홍민, 김종인 (2003). **핵심역량 핵심인재**. 리드리드출판.
- 임진영 (2009). 기록작업을 통한 교사의 사고와 행동의 변화과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선영, 이정주 (2015). 대학에서의 팀기반 학습 설계모형 개발연구. **아시아교육연구**, 16(1), 271-302.
- 전미연 (2018). 실제적 학습 기반 자유학기제 수업설계 모형 개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효진 (2018). 레지오 에밀리아 유치원 교사들의 기록작업에 관한 경험과 의미.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주형석, 이규건 (2014). **프로그래밍 논리 학습을 위한 순서도 작성 기법**. 북스홀릭.
- 지옥정, 장희선 (2010). 프로젝트 접근법 수행을 위한 유아교사의 핵심역량 도출. **한국영유아보육학**, 62, 261-281.
- 채승연 (2020). 2019 개정누리과정에 대한 유아교사들의 인식과 현실적 딜레마.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석실 (2015). 논문분석을 통한 유아평가 방법 탐색. **유아교육연구**, 35(2), 73-95.
- 한솔어린이보육재단, 오문자 (2018). **기록작업을 통해 다시 만난 어린이. 레지오 정신을 토대로 한 도담도담 이야기1**. 어가.
- 한수민 (2014). 실천적 지식 구성을 위한 교수-학습 모형 개발 -가족생활교육 수업사례를 중심으로

- 로-.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홍경선 (2007). 성찰게시판을 활용한 학습자중심 수업평가 방안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7(1), 449-471.
- 황아름 (2018). 절차적 사고를 위한 순서도 교수 학습 방법 및 적용.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lvestad, T., & Sheridan, S. (2015). Preschool teachers' perspectives on planning and documentation in preschool.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85(3), 377-392. <https://doi.org/10.1080/03004430.2014.929861>
- Aljabreen, H. (2020). Montessori, Waldorf, and Reggio Emilia: A Comparative Analysis of Alternative Model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Early Childhood*, 52(3), 337-353. <https://doi.org/10.1007/s13158-020-00277-1>
- Barnett, L. A. (1990). Developmental benefits of play for childre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2(2), 138-153. <https://doi.org/10.1080/00222216.1990.11969821>
- Fyfe, B. (1998). Questions for Collaboration: Lessons from Reggio Emilia. *Canadian Children*, 23(1), 20-24.
- Carr, M. (2001). *Assessment in early childhood settings: Learning Stories*. Sage Publications Ltd. 1-224.
- Daly, S. R., Yilmaz, S., Christian, J. L., Sefert, C., M., & Gonzalez, R. (2012). Design heuristics in engineering concept generation.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101(4), 601-629. <https://doi.org/10.1002/j.2168-9830.2012.tb01121.x>
- Ellis, T., & Levy, Y. (2010). A guide for novice researchers: Design and development research methods. *Proceedings of Informing Science & IT Education Conference*, 10(10), 107-117. <https://doi.org/10.28945/1237>
- Given, H., Kuh, L., LeeKeenan, D., Mardell, B., Redditt, S., & Twombly, S. (2009). Changing school culture: Using documentation to support collaborative inquiry. *Theory into practice*, 49(1), 36-46. <https://doi.org/10.1080/00405840903435733>
- McNally, S. A., & Slutsky, R. (2017). Key elements of the Reggio Emilia approach and how they are interconnected to create the highly regarded system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87(12), 1925-1937. <https://doi.org/10.1080/03004430.2016.1197920>
- Mitchell, L. M. (2007). Using technology in Reggio Emilia-inspired programs. *Theory into Practice*, 46(1), 32-39. <https://doi.org/10.1080/00405840709336546>
- Richey, R. C., Klein, J., & Nelson, W. (2004). Developmental research: Studies of instructional design and development. In D. Jonassen (Ed.), *Handbook of research for educational communications and technology (2nd ed.)* (pp. 1099-1130).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Rita C. Richey, James D. Klein. (2012). *교육공학연구를 위한 설계·개발연구*(정현미, 김광수 역), 학지사. (원판 2007)

- Seels, B. B., & Richey, R. C. (1994). *Instructional technology: The definition and domains of the field*. Association for Educational Communications and Technology.
- Schroeder-Yu, G. (2008). Documentation Ideas and applications from the Reggio Emilia approach. *Teaching Artist Journal*, 6(2), 126-134. <https://doi.org/10.1080/15411790801910735>
- Shen, X. S., Chick, G., & Zinn, H. (2014). Playfulness in adulthood as a personality trait: a reconceptualization and a new measurement. *Journal of Leisure Research*, 46(1), 58-83. <https://doi.org/10.1080/00222216.2014.11950313>
- Shillady, A. (2013). Using Documentation and Assessment to Support Children's Learning. *YC Young Children*, 68(3), 6-7.
- Turner, T., & Wilson, D. G. (2009). Reflections on documentation: A discussion with thought leaders from Reggio Emilia. *Theory into Practice*, 49(1), 5-13. <https://doi.org/10.1080/00405840903435493>
- Tracey, M. W. (2001). *Th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n instructional systems design model incorporating multiple intelligenc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Wayne States University.
- Van den Akker, j. (1999). Principel and methods of development research. In j. van den Akker, R. M. Branch, K. Gustafson, N. Nieveen & T. Plomp (Eds.) *Design approaches and tools in education and training* (pp. 1-14). Kluwer Academic Publishers.

논문투고 : 22.12.15.  
수정원고접수 : 23.03.24.  
최종게재결정 : 23.04.01.